

지부(회) 소식

성남시지부 제15차 창립기념식 개최

성남시지부(지부장 오세왕)는 지난해 11월 28일 은행동 궁정부페에서 제15차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성남시지부는 자축과 함께 제과인의 기술향상과 지역제과업계를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본회 이선우 사무총장 및 관련인사가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성북지회 세미나 개최

성북지회(지회장 이기섭)는 지난 11월 2일과 24일 2차에 걸쳐 꼬레옹과자점 공장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섭 지회장, 박노현 지회기술분과위원장, 박강근 꼬레옹 공장장, 이덕근 불란서제과 공장장등이 강사로, 바케트류와 건강식빵류에 대한 실연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에 선보인 제품은 여러가지 잡곡을 이용한 옥수수바게트, 호밀바게트, 잡곡바게트, 식빵, 가당빵 등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건강식 제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성북지회는 지속적인 세미나를 실시하여 회원의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지역 비엔나 베이커리 회원 효행원에 제빵기술지도

수원시지역의 비엔나 베이커리 회원(회장 김윤수) 일동은 지난해 11월 29일 사회복지법인 효행원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8명으로 구성된 비엔나 베이커리 회원은 지난 5월부터 효행원 원생 80명을 대상으로 주2회 제빵기술을 지도하는 한편 월1회 케이크를 만들어 생일잔치를 베푸는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수원주재기자 이덕주)

대전 성심당 2호점 개설

대전 성심당이 서구 삼천동에 2호점을 열었다. 한신코아 가기 전 청솔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성심당베이커리는 4층 건물에 1층과 2층에는 매장, 3층에는 공장, 4층에는 사원 숙소와 복지시설이 마련돼 있다.

인천시지회 하반기 자율지도 실시

인천시지회(지회장 길창덕)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6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인천주재기자 이세돈>

김병일 마산지부장 크라운제과점 오픈

김병일 마산지부장이 지난 12월 15일 기존의 태화당제과점에서 회원구 석전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크라운 제과점으로 이름을 바꿔 오픈했다.

마포 바이젠과자점 오픈

마포에서 아빠제과를 경영하는 김도성 사장이 지난해 12월 15일 가든호텔뒤 삼성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바이젠과자점을 새로 열었다.

발렌타인데이 판촉용 족자 판매

본회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회원업소의 매출진작을 위한 판촉용 족자(사진)를 제작 염가 배부한다.

신청마감: 1월 20일까지

가격: 8,000원 / 매당

신청방법: 각 지회, 지부를 통해 개별신청



개업안내

- 김충복제과 / 전병운 / 서초구 잠원동 70-2 / 전화 533-2686
- 파스쿠니 / 김형철 / 강남구 청담동 49-21 / 전화 517-4973
- 크리스탈명과 / 송영자 / 서초구 서초동 1532-7 / 전화 583-4698
- 피자풀라(신림점) / 김홍종 / 관악구 신림2동 1694번지 신림현대종합상가 204호 / 전화 888-3456